



소식지 제28호(2000년 5월)

발행인: 최재웅,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30-70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65-8004

e-mail: jongbok@nms.kyunghee.ac.kr, <http://society.kordic.re.kr/~ksli>

㉑ 2000년 한국언어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 모집

한국언어정보학회에서는 오는 6월 29(목)-30(금)일 양일간 2000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위원회/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아래의 논문 제출 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논문의 작성 시에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논문발표와 홍보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정보포장 이론”과 “초점”에 관련된 Session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많은 논문 제출을 바랍니다.

- 다 음 -

- 개최 일시: 2000년 6월 29일(목) - 30일(금)
- 개최 장소: 조선대학교
- 논문 제출 분야: 언어학 제 분야 (이론언어학 및 전산언어학)
- 발표자 신청:

1. 논문초록 제출: 2000년 5월 20일 (토요일)까지 A4 용지 1쪽 내외로
전자우편으로 제출 (저자명, 소속 기관, 연락처(e-mail, 주소, 연락 전화) 명기)
2. 최종 논문 (camera ready) 제출 마감: 6월 17일(토)
3. 논문 제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34번지 (우편번호: 120-928)
명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홍민표 교수
TEL: 02-300-1751 E-Mail: mphong@wh.myongji.ac.kr

학술대회 조직위원/프로그램 위원: 이남근(공동 위원장, 조선대), 이민행(공동 위원장, 연세대), 최재웅(고려대), 김종복(경희대), 남승호(서울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조세연(호남대), 이경재(생성문법 총무), 박기성(부산대), 임지룡(경북대)

㉠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언어와 정보]의 논문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실 원고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하시면 되며, 아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방법: 전자우편 ynoling@hanbat.chungnam.ac.kr

일반우편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노용균

투고기한: 상시 접수

[언어와 정보]는 신속한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세계적 수준의 논문 평, 국제적 가독성이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져 세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학 학술지입니다.

㉡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2000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학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평생회비 납부에**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학회와 협력관계가 있는 생성문법학회, 한국언어과학회, 현대문법학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회원 10,000원의 특혜가 있습니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보학회 (김중복), 계좌번호: 012336 -0071907, 경희대 서울우체국).

㉢ 2000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연회비:** 최재웅(고려대), 김경학(수원대), 윤애선(부산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과학기술원), 이영현(조선대), 김중복(경희대) 김경예 (한경대) 이상 8명
- **정회원 연회비:** 강범모(고려대), 강우순(경희대), 곽은주(세종대), 김용범(광운대), 김종현(서강대), 남승호(서울대), 노용균(충남대), 문승철(항공대), 염재일(홍익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윤재학(경희대), 이예식(경북대), 이익환(연세대), 이해운(서울대), 장석진(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정찬(동서대), 조세연(호남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대), 홍성룡(남서울대) 이상 23명
- **준회원 연회비:** 구유선(충남대), 송현석(서울대), 육청민(충남대), 이진옥, 위혜경(연세대), 채숙희(서울대), 최종주(조선대), 박병선(고려대), 차준경(고려대) 이상 9명

㉣ 구구조문법연구회 소식

지난 4월 29일 구구조문법연구회가 광주 조선대에서 있었습니다. 발표해주신 한국외대 채희락 선생님, 충남대 류병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㉞ 초점연구 세미나

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초점현상(focus)에 관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재웅 교수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초점 연구동향에 대한 추가 발표 및 exhaustivity에 대한 논의, 초점의 음성적 특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초점 현상과 관련하여 화자들의 직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 등이 모임의 토론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소장하신 초점 관련 참고 자료가 있다면 학회 홈페이지 토론방에 게시하여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㉟ 한국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모임

초청, 일반논문발표와 “21세기 한국인지과학의 발전방향”에 관한 패널 토의로 구성된 춘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 5월 27일 (토 9:0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제 2인문관

㊱ 인지과학작업(CogSci@SNU) 발간 및 원고 모집

"인지과학"의 넓은 범주에서 자유로운 사고의 뻗침을 위해 다양한 가설적 논점을 제기하고 논의하며 인지과학내의 학제간 공통관심사의 열린 토론의 장으로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서 [인지과학작업] 학술지를 오는 5월 창간합니다. 관심있는 소장학자들(석,박사학생 포함)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연락처: 151-742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14동223), 서울대 인지과학 연구소 심소영 조교(syso@snu.ac.kr, 880-7734).

㊲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과 국립국어연구원은 제1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가 8월 24-25일 연세대학교에 개최합니다. 국어정보학 분야에 관심있는 언어학, 인지과학 및 컴퓨터공학 분야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과 일반인, 관련 벤처기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21세기 세종계획 홈페이지 <http://www.sejong.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㊳ 신입회원소식

▶ 김미경(대덕대) 송현석(서울대), 이진옥(서울대), 정미애(혜전대) 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㊴ 발표논문초록

고정함축 개념의 모순성 및 고정함축과 전제의 중복 가능성

윤 영 은 (이화여대)

잘 알려진 대로, Grice(1967)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발화의 의미를 ‘말해지는 것’(what is said)과 ‘함축되는 것’(what is implicated)으로 분류했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것’의 진리조건적 의미로서 언

어 표현으로부터 나오는 ‘고정’(conventional) 의미라 할 수 있는 반면, ‘함축되는 것’이란 비진리조건적 의미로서 맥락에서 얻어지는 화용적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rice는 예를 들어 ‘therefore’와 같은 표현이 이끌어내는 의미를 ‘말해지는 것’과 ‘함축되는 것’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이름짓고 있다

한편, ‘전제’(presupposition) 현상의 분석이 자연 언어 의미 이론들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Horn(1996)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 현상은 주요 의미 현상들 중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제’와 ‘고정함축’은 서로 상당히 유사한 개념 내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Rieber(1997)는 고정적인 동시에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온 고정함축 표현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무언의 수행사’(tacit performative)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Bach(1999)는 ‘고정함축’이라는 개념의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고정함축 표현은 함축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 의미인 동시에 진리조건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소위 고정함축 표현의 진리값이 거짓인 경우에도 전체 문장의 진리값이 참인 것은 이 고정함축 표현이 일차적인 내용(primary contents)의 의미가 아니라 부차적인 내용(secondary contents)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먼저 고정함축과 전제가 상호 중복되는 개념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과 더불어 각각의 고유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고정함축 표현과 전제 표현이 전체 문장에 기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고찰하는 문제이다. 즉, 이들 표현이 전체 문장에 기여하는 의미는 진리조건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부차적 의미인지 아니면 단언의 근간을 이루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고찰하는 문제이다. 대조되는 Rieber(1997)와 Bach(1999)의 최근 두 이론의 검토를 통해 전통적인 고정함축 이론의 문제점과 이들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정당성과 더불어, 더 보완되어야 할 점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Bach, K. (1999) 'The Myth of Conventional Implicatur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2-4, 327-366.
- Grice, H. P. (1967) *Logic and conversation*, William James Lectures, reprinted in Grice 1989, pp. 1-143.
- Rieber, S. (1997)'Conventional Implicatures as Tacit Performativ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 51-72.

Incremental Theme, Telicity and Monotonicity Revisited
-Evidence from Gradual and Other Predicates in Korean
 이정민/김현주(서울대학교)

식다, 끓다, 얼다, 녹다, 차다 등의 한국어 기동동사와 *끓어지다*, *높아지다* 부류처럼 정도매김 형용사 (Gradable Adjective)에서 파생한 동사들과 더불어 상적으로 완성동사로 분류되는 각각의 사동형(*끓히다*, *끓이다*, *채우다*, 등)은 부사 *거의*(almost)와 공기할 때 각각에 대응되는 영어의 예들과는 달리 해석상의 중의성을 보이지 않고 각각의 동사가 외연하는 행위(activity)와 관련된 사건의 완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한 가지 해석만이 도출된다. 이와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Hay 외(1999)에서 제시한 정도 달성동사(degree achievement)와 비슷한 행동을 보인다. 아래의 예들에서 보듯이, *끓다*와 *끓히다*가 지속 부사류(durative adverbial)를 취하는 경우 사건구조상의 과정 하위사건이 지속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VP내에 시간한도 부사류(time span, *in*-adverbial)가 오면 사건의 완결(telicity) 해석이 가능해진다.

- (1) a. 물이 한시간 동안 끓었다. a'. ?*물이 한 시간 동안 완전히 끓었다.
 b. 물이 한시간 만에 (완전히) 끓었다.
 c. 물이 **잘** 끓었다.(manner or quality reading, not high degree on scale)
- (2) a. 인부들이 1년 동안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 (그) 길이 1년 동안 계속 넓어졌다. (cf.- \ -> (그) 길이 넓다)
 b. 인부들이 (1년 만에) (그) 길을 10미터 넓혔다.
 c. ??인부들이 1년 만에 (그) 길을 웬만큼/상당히/어느 정도/많이 넓혔다.
 d. ???인부들이 1년 만에 (그) 길을 넓혔다.

우리는 Hay 외(1999), Kennedy(1997)와 맥락을 같이하여 위에서 보는 바대로 우선, *끓다*(*차다*, *비다*)부류의 경우, 이들은 일종의 유한척도(closed-range;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는 척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 이들 동사는 어휘의미에 본래적으로 최대값[*차다*와 같은 positive 술어는 upper-end, *비다*와 같은 negative는 lower-end value에 해당]을 당연값으로 취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1b)에서처럼 외현적으로 종결점이 안 나타나더라도 대화 함축에 의해 끊는 정도와 관련된 척도상에서의 최대치가 표준치(trivial standard)로 적용되는 사건의 종결해석이 가능하다. (1a')의 부사는 이러한 함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도 형용사 *넓다*는 맥락에 따라 표준치가 달라지는 무한척도(open-ranged)를 도입한다. 따라서 이를 어기로 하여 파생된 *넓히다*, *넓어지다*가 기술하는 사건의 종결점은 (2b)에서처럼 척도상의 특정한 값이 외현적으로-계량표현(measure phrase)으로- 명시되는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다. (2a)의 경우는 *넓다*가 (그)길이라는 개체를 논항으로 취하여 넓이(width dimension) 척도에 투사하는 정도값이 그 제한점이 없는 척도를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만을 보인다. 계량 표현이 Dowty(1979)에서의 Incremental Theme에 해당하는 논항으로서 시간한도 부사와 같이 나타난다.

창조동사의 경우, 인공물논항이 종결점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위의 계량논항(Hay 외(1999)의 명시적인 차이값(difference value)과 유사하다. *어머니가 생선으로 피개를 끓이셨다*에서 창조어의 의미를 갖는 *끓이다*는 언제나 척도상의 최대값을 표준값으로 갖기 때문에--최대치가 명시적으로 인공물 논항으로 구현되어-- 종결점을 갖는 해석이 도출된다고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eat a sandwich*의 경우 (1)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Hay 외(1999)에서 지적한 바대로 논항자체라기보다는 논항이 갖는 물리적인 자질(여기서는 *sandwich*의 volume)이 제한되는 경우-최대치를 당연값으로 가정하므로-종결점을 갖는 해석이 도출된다.

논항내의 물리적인 자질이 술어의 상적인 전이-종결점 도입-에 관여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예측해주는 정보를 포함한 어휘의미구조를 기술함에 있어 우리는 Pustejovsky(1995)를 확대하여 아래의 (3)과 (4)에서처럼 특질구조내의 TELIC에 의한 공동합성의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형용사의 의미를 개체를 논항으로 하여 척도상의 정도 값에 투사하는 함수로 가정한다. 다만, (1)과 같은 기동동사의 경우에는 사역의 의미요소를 의미구조의 작인역에 기술하지 않는 반면 (2)의 경우는 아래의 구조에서처럼 작인역에 차이 값을 일으키는 사역의 행위를 포함하여 기술하는 차이를 보인다.

(2) b. 인부들(x)이 (1년 만에) (그) 길(y)을 10미터(z) 넓혔다.

==> CAUSE(x)(INCREASE(넓(y))(z))

(3) (길을) ψ 넓히다

EVNT-STR= E1= e1= **과정1(CAUSATION)**

E2= e2= **전이(과정2+ 상태)**

HEAD= e1

ARG-STR= ARG1= x: **animate_ind**

ARG2= y: **location**

[ARG-STR= ARG1= y: **location**

D-ARG1=w: **measure[± bounded]**

QUALIA= **location · measure-lcp**

FORMAL= **HAVE(e,y,w)]**

QUALIA= **change-of-state-lcp**

TELIC= **INCREASE(e2,(넓(y))) = 넓어지다(e2,(넓(y)))**

AGENT= **CAUSE-INCREASE_act(e1,x,(넓(y)))**

(4) (길을 MP) 넓히다

EVNT-STR= E1= e1= **과정1(CAUSATION)**

E2= e2= **전이(과정2+ 상태)**

HEAD= e1
 ARG-STR= ARG1= x: **animate_ind**
 ARG2= y: **location**
 [ARG-STR= ARG1= y: **location**
 D-ARG1=w: **measure[± bounded]**
 QUALIA= *location · measure-lcp*
 FORMAL= HAVE(e,y,w)]
 D-ARG1= z: **numeric measure[+ bounded]**
 [QUALIA= FORMAL= ∈ or ≤(e2,z,w)
 TELIC= INCREASE(e2,(넓(y)),z)]
 QUALIA= *change-of-state-lcp*
 FORMAL= 넓(y)+ z(e2, w)
 TELIC= INCREASE(e2,(넓(y)),z) = 넓어지다(e2,(넓(y)),z)
 AGENT= CAUSE-INCREASE_act(e1,x,(넓(y)))

(3)과는 달리 (4)에서처럼 수량표현이 당연논항으로 올 때 논항명사의 구조와 술어의 특질구조가 TELIC 역할을 공유하므로 특질구조의 통합에 기반한 공동합성이 적용되어 (4)와 같은 구조가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때 (3)과는 달리 FORMAL이 기술되고 사건의 종결점이 도입된다. 이리하여, 부정적 반대말인 좁히다는 같은 표상을 가지면서 TELIC= DECREASE(e2,(넓(y)),z)라는 역인 감소의 함수로 달라지게 한다. 물론 어휘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넓이’는 있어도 *‘좁이’가 없음이, 또 ‘좁히다’가 ‘넓이를 줄이다’와 동의임이 설명된다.

NPI를 허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1)부정 술어 삼가다 등, (2)긍정-부정 짝의 한쪽인 좁다, 작다, 가난하다 등, (3)aspect에 있어서의 단조감소성 여부(ter Meulen 1997)(어떤 책이든 수입을 중단했다/*시작했다), (4)이른바 total/partial predicate(윤영은 1996)(clean/dirty 등), (5) Incremental Theme을 취하는 annihilation/consumption predicate(어떤 도시라도 파괴했다/*건설했다)의 단조감소성에 비추어 본 서술어들과 단조성(monotonicity)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국어 초점사 ‘이미’: 초점사 기능과 상(相) 기능 사이 최규련(연세대학교)

‘이미’는 전통적 품사분류상 시간부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근래에는 일부의 연구에서 ‘아직’과 함께 초점사(focus particles)나 여감사/양태사(modal particles in E./Abtöungspartikel in G.) 기능이 시간부사 기능외에 같이 분석되거나(Choi, Kyu-Ryun 1989 참고), 상(相)부사로서 역시 ‘아직’과 같이 다루어지고 특히 쌍대성(雙對性, duality)의 관점에서 논의되고도 있다(임서현 · 이정민 1999 참조). 이 연구에서 ‘이미’는 국어의 초점사, 특히 척도 첨가 초점사(scala additive focus particles)에 속하는 것으로(Choi, Kyu-Ryun 1997, 1998a/b, 1999a/b/c/d etc. 참고), 또한 상 연산자(aspectual

operator)로서 분석된다. 나아가 ‘이미’는 어감사/양태사로서도 분석된다.

이렇듯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이미’의 여러 기능들을 함께 다루고, 또 이러한 연구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의미기능을 설정하여 여러 기능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데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미’의 상 연산자로서의 기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국어의 상 문장유형을 Löner(1987 etc. 최규련 1999도 참조)를 따라, 상태(states)(과정(processes) 포함)를 지시하는 미완료상 문장(imperfective sentences)과 사건(events)을 지시하는 완료상 문장(perfective sentences) 유형으로 구분한다. 논리학 및 형식의미론에 이론적 기반을 둔 Löner(1987, 1989, 1990, 1999 etc.)는 양태사/어감사(modal particles/Abtöungspartikel, Weydt 1969, 1983 etc.)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도외시한다. 그러나 그대신 König(1991 etc.)가 옳게 지적하듯, Löner는 너무 많은 것을 화용론적인 것에서 자기 이론에 여과 없이 투입시켜 반론들(Mittwoch 1992, Michaelis 1996, van der Auwera 1993 etc. 가장 많은 지지를 표명하는 König 1991도 일부는 의문을 제기한다.)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아직, 겨우’에 상응하는 독일어 표현들 ‘schon, noch, erst’ 분석을 위해 그가 개발한 이론인, 국면 양화사(phase quantifiers)로서의 ‘noch(아직)’ 기능이 그의 최근 논문(Löner 1999 결론부분 참조)에서조차 의문시되고 있으며, ‘schon(이미)’ 경우도 비국면 양화사 기능- 어감사 등 포함 -을 거론해야 하는 예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 Löner(1999)는 그러나 관련표현들에 대해 그가 점화시킨 쌍대성 논의를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있다. 국어에서는, 서로 밀접히 관련된 표현들, 즉 ‘이미’, ‘아직’, ‘아직... 부정(否定)’, ‘더 이상...부정(否定)’ 연관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쌍대성(duality) 관계를 미완료상 문장(imperfective sentences)에서 대체로 설정할 수 있다. 즉, 한 쪽의 바깥부정이 다른 한쪽의 안쪽 부정과 동등하다. 완료상 문장(perfective sentences)에서는 ‘아직’이 아니라 ‘겨우’가 ‘이미’와 쌍대 관계(dual relation)를 이룬다(최규련 1999 참조). 어감사 기능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쌍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어문학적인 관찰과 기술 그리고 형식의미론적인 정교한 설명과 논리를 일반 언어현상을 규명하는 데 절충적으로 통합하려는 König(1991 etc.)는,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어감사를 자기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König(1991 etc.) 역시 어감사를 주안점이 아닌 부수적 관심사로 사족처럼 주논의에 덧붙여 다루므로 인해서, 어감사 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마치 초점사 현상이나 상 연산자 현상인양 잘못 취급되는 일이 발생한다. 국어의 관련 예문들을 통해서, ‘이미’가 관여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명하여 이러한 오류도 불식시키고자 하는 바, 여기서도 ‘이미’의 기본의미기능 ‘첨가 그리고 비동일성의 단언 -참조점보다 앞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의 초점사 기능 논의에 있어서는 König(1991 etc.)가 도입하고 개발한 초점사 규정, 통사적 속성들(syntactic properties) 및 의미적 매개변수들(semantic parameters)을 대체로 채용하고 원용한 국어 초점사 논의들(최규련, *ibid.*)을 따르고, 어감사 기능 논의는 Weydt(1969, 1983 etc)와 최규련(*ibid.*)을 잇는다.

다음은 ‘이미’의 다양한 기능을 보이는 보기이다.

(1) 순이는 **이미** 집에 있다. (상 연산자)

- (2) **이미** 1950년에 그 문제는 제기되었다. (초점사)
 (3) 그건 미미가 **이미**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어감사/양태사)

<Selected References>

- Choi, Kyu-Ryun. 1989. "'Schon' und 'noch' und ihre koreanischen Entsprechungen 'imi' und 'ajik'".
 In: *Sprechen mit Partikeln*. Akten des IV. Internationalen Partikelkongresses Berlin 1987.
 Hrsg. v. Harald Weydt. Berlin/New York. 129-140.
- Choi, Kyu-Ryun. 1999. "The Semantic Analysis of Korean Focus Particle 'kyou' Focusing on the
 Aspectual Functions of 'kyou' ". *Korean Semantics* 4.
- Im, Seohyun and Chungmin Lee. 1999. "Duality Between Aspectual Adverbs *imi* 'already' and *acik*
 'still' ". *Language Research*. September 1999. volume 35, No. 3
- König, E. 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 König, E. 1993. "Focus Particles", In: Jacobs/Stechow/Sternfeld/Vennemann (Hrsg.) *Handbuch
 Syntax* I. 978-987. Berlin
- Löner, S. 1987. "Quantification as a Major Module of Natural Language Semantics,".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eds.,
 jeroen Groenendijk, Dick de jongh, Martin stokhof.
- Löner, Sebastian (1991): "*Schon - erst - noch*: An integrated Analyses", in: Werner, Abraham
 (1991)(ed.), pp. 85-140.
- Löner, S. 1999. "Why German *Schon* and *Noch* are still Duals: A reply to van der Auwera,".
Linguistics & Philosophy 22.1.
- Weydt. H. 1969. *Abtöungspartikeln. Die deutschen Modalwörter und ihre französischen Entsprehungen*,
 Bad Homburg: Gehlen.
- Weydt. H. 1983. *Partikeln und Interaktion*, T?ingen: Niemeyer.
- Weydt. H. and E. Hentschel. 1983. "Kleines Abtöungswörterbuch." In: H. Weydt (ed.), *Partikeln und
 Interaktion*, T?ingen: Niemeyer. 3-24

Reasoning with Generic Sentences

염재일(홍익대학교)

정보의 역할 중의 하나는 현재까지의 정보로부터 어떠한 추론을 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성을 말해주는 문장(generic statements)이라 할 수 있다. 새는 일반적으로 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모르는 개체가 새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새가 예외적인 새가 아니라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리고 그 새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규칙성 문장은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도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제한된 정보 하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해준다. generic statement는 다른 문장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단조성(nonmonotonicity)라고 할 수 있다. 한 법칙에 대하여 그와 상반되면서 좀더 제한된 대상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예외로 허용함으로써 한 정보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나중에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개체가 새라는 것만 알았을 때에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새 중에서 타조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앞에서 추론에 적용했던 법칙보다 더 특수한 법칙인 타조는 날 수 없다는 법칙을 적용하여 그 새는 날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generic statement의 의미론적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특이성은 의미론적으로 다른 문장들과는 다른 논리를 요구한다. 본 논의에서는 Veltman (1991) default logic을 논의하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으로서 전통적인 modality의 해석에서 사용된 selection function을 이용한 규칙성 문장의 의미론적 분석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Veltman은 selection function의 사용은 규칙성 문장의 추론적 특성을 포착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frame의 update를 사용한다. 이를 통하여 추론의 비단조성을 잘 포착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한편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규칙성을 말해주는 문장 역시 진리치(truth-value)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론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과는 (보통) 달다'라는 문장은 직관적으로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옳다/그르다라는 판단은 한 가능세계에서 정의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의 이론에서는 규칙성 문장의 의미가 한 가능세계에서 정의될 수 없다. 또한 규칙성 문장의 부정이라든가 규칙성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내포되었을 경우, 해석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Veltman의 이론과 같이 규칙성 문장의 추론적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00학년도 제1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3/18 (토)	기획 9:30-10:40	위 혜경 (연세대)	"협초점의 한정성 (Definiteness of Narrow Focus)"	윤 재학 (경희대)
	휴식 (10분)			
	일반 10:50-11:30	이 진옥 (충남대)	"영어 명사 은유의 개념구조"	
	일반 11:30-12:10	윤 애선 (부산대)	"멀티미디어 다국어 사전 개발 도구 DiET (Dictionary Editor)"	
4/15 (토)	기획 9:30-10:40	채 숙희 (서울대)	"An Analysis of English Complex Sentences in terms of Intrasentential Centering"	이 장송 (육사)
	일반 10:40-11:20	박 병수 (경희대)	제약 기반의 형태통사론의 수립 (Toward a Constraint-Based Morphosyntax (CBMS)) -- 짧은('안') 부정문의 분석 --	
	휴식 (10분)			
	기획 11:30-12:40	구 유선 (충남대)	"관념적 담화표지"	
5/20 (토)	일반 9:30-10:10	윤 영은 (이화여대)	"고정함축 개념의 모순성 및 고정함축과 전제의 상치(相値) 가능성"	김 종복 (경희대)
	일반 10:10-10:50	이정민/김현주 (서울대)	Incremental Theme, Telicity and Monotonicity Revisited-Evidence from Gradual and Other Predicates in Korean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최 규련 (연세대)	"국어 초점사 `이미': 초점사 기능과 상 기능 사이"	
	일반 11:40-12:20	염 재일 (홍익대)	"Reasoning with Generic Sentences"	
6/17 (토)	일반 9:30-10:10	김 종현 (서강대)	"Focus and Information States in Korean Echo Questions"	홍 민표 (명지대)
	일반 10:10-10:50	전 영철 (경남대)	"Definiteness Effect in Korean (Existential Sentences)"	
	휴식 (10분)			
	일반 11:00-11:40	류 병래 (충남대)	"위치와 공간에 관한 지식의 의미론적 접근"	
	일반 11:40-12:20	이 예식 (경북대)	TBA	

(OHP가 필요하신 발표자께서는 미리 총무에게 연락해주시시오.)

한국언어정보학회 구구조문법연구회

<2000년도 1학기 워크샵일정>

장소: 대우재단 및 조선대학교

날 짜	장 소/ 시 간	발표자	주 제	토론자
4월 1일 (토)	대우재단 12:30 - 3:00	정찬, 유은정	Word Order	이남근, 조세연
4월 29일 (토)	조선대학교 2: 00 - 5:00	류병래, 채희락	Argument Structure And Linking	박효명, 노용균
6월 3일 (토)	대우재단 12:30 - 3:00	임경섭, 채명희	Case	이기용, 박병수
7월 1일(토)	조선대학교 2:00- 5: 00	이민행, 김종복	Information Packaging in HPSG	장석진, 김용범

주제 및 Background Reading

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논문들은 모두 한권으로 제본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간사 김유신 (leri@nms.kyunghee.ac.kr), 961-0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